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 과 보 고 서

2016. 10.

목 차

I.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1
1. 조사개요	1
2. 주요 조사결과	1
II.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비교] ...	3
III.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7
1. 가구 관련	7
2. 보건 부문	8
2. 소득·소비 부문	10
3. 주거와 교통 부문	11
4. 사회 통합 부문	16
5. 노동 부문	25
IV. 울진군 특성항목	27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I 조사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승인번호 78204호)
- 작성주기 : 1년
- 조사목적 :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추진 등 행정시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부문 : 5개 부문* 40개 문항(가구원은 32개 문항)
* 5개 부문 : 소득과 소비,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 조사기간 : 2015. 8. 17 ~ 8. 31(15일간)
- 조사대상 : 도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총 41천명(울진군 800가구)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결과공표 : 홈페이지 게재(2016년 11월 중)

II 주요 조사결과

[가구관련]

- 도내 비문해 인구* 106천명, 비문해자 인구비율 4.5% 차지
*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
- 맞벌이가구는 전체 가구의 56.2%. 두 가구 중 한가구는 맞벌이

[소득과 소비]

- 가구 소득 만족도 ‘만족한다’ 16.9%, 2년 전 대비 1.0%p증가
- 가구 부채
 -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 31.6%, 2년 전과 큰 변동이 없음
 -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 1순위 ‘주택임차구입’, 2순위 ‘영농자금’

[주거와 교통]

- 거주지(동네) 만족도
 - ‘만족한다’ 50.8% vs. ‘불만족’ 9.6%
 - 거주지 불만족 사유 : ‘문화·생활편의시설이 떨어져서’ 26.6%
- 향후 현거주지 거주 의사
 - 향후 현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의사 : ‘그렇다’ 68.7% vs ‘그렇지 않다’ 8.5%
 - 아주 희망지역 : ‘수도권’ 31.3%, ‘그외 타시도’ 21.9%, ‘대구’ 21.8%의 순
- 주된 교통수단 : ‘승용차’ 28.1%, ‘사파스’ 25.2%, ‘택시’ 8.0%, ‘자전거’ 3.8%

[사회통합]

- 60세 이상인구 중 자녀와 동거비율은 15.2%
- 주관적 귀속 계층 : 상위 1.7%, 중위 52.4%, 하위 45.9%
 - 2년전 대비 상위 0.7%p 감소, 중위 2.7%p 감소, 하위 3.3%p 증가
- 긍정적, 부정적 경험지수
 - 긍정적 경험지수* : 2013년 63.0 → 2015년 58.4 (4.6%p ↓)
* 긍정적 경험지수 : 어제 하루동안 경험한 긍정적 경험들을 점수화
 - 부정적 경험지수* : 2013년 20.5 → 2015년 20.9 (0.4%p ↑)
* 부정적 경험지수 : 어제 하루동안 경험한 부정적 경험들을 점수화
- 삶에 대한 만족도* 5.8, 2년전과 큰 차이가 없음
* 삶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응답자가 0~10점까지 점수화
※ 대한민국 5.8, OECD 평균 6.5, 최고 노르웨이 10.0, 스페인 5.5
- 지역소속감
 - 거주 동네에 대한 소속감 : ‘소속감 있다’ 69.8% vs ‘소속감 없다’ 30.3%
 - 거주 시군에 대한 소속감 : ‘소속감 있다’ 64.8% vs ‘소속감 없다’ 35.2%
 - 경북도에 대한 소속감 : ‘소속감이 있다’ 55.4% vs ‘소속감 없다’ 44.5%
- 도민 자긍심
 - 경북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7.9%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비교)

I. 가구 관련

■ (비문해 가구원)	<2014>	vs	<2015>
▶ 비문해 인구	108천명	↘	106천명
▶ 비문해자 비율	4.6%	↘	4.5%
■ (맞벌이 가구 비율) ※ 도 평균 56.2%	<30대>		<50대>
	44.7%		64.7%

II. 소득·소비 부문

■ (소득만족도)	<2013년>	vs	<2015년>
▶ 만족한다	15.9%	↗	16.9%
▶ 만족하지 못한다	28.5%	↘	22.7%

■ (월평균 소비지출액 구간별 가구비율)			
▶ 200만원미만 지출	67.7%	↗	75.1%
▶ 200~400만원미만 지출	25.7%	↘	20.4%
▶ 400만원이상 지출	6.6%	↘	4.5%

■ (전반적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vs	<만족하지 못한다>
▶ 도 평균	23.0%	<	28.4%
● 20대이하	29.7%	>	23.6%
● 40대	28.2%	>	25.0%
● 60대이상	18.1%	<	31.5%

■ (부채가구)	<2013년>	vs	<2015년>
▶ 부채가구 비율	31.4%	↔	31.6%
▶ 부채의 주된 이유	<1위> 주택임차구입	<2위> 영농자금	<3위> 기타생활비
▶ 부채의 부담정도('부담스럽다' 응답비율)	<2013년> 32.8%	↘	<2015년> 31.4%

III. 보건 부문

■ (의료서비스 이용기관)	<2013년>	vs	<2015년>
▶ 도내 의료기관 이용률	80.2%	↘	74.0%
● 이용 의료기관 유형	<1위> 병(의)원	<2위> 종합병원	<3위> 보건소
▶ 도외 의료기관 이용률	5.6%	↗	6.7%
▶ 의료서비스 만족도	<2013년> 58.0%	↗	<2015년> 60.9%

IV. 주거와 교통 부문

■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	<2013년>	vs	<2015년>
▶ 만족도	52.9%	↘	48.4%

■ (거주지 만족도)	<2013년>	vs	<2015년>
▶ 동네에 대한 만족도	53.8%	↘	50.8%
▶ 시군별 동네만족도	<1위> 군위	<2위> 영양	<3위> 영덕
● 상위 시군	성주	경산	구미
● 하위 시군			
▶ 동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2013년>		<2015년>
● 문화, 생활편의시설이 멀어서	25.0%	↗	26.6%
● 소음, 매연, 악취 등 공해	23.6%	↘	20.5%
●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서	16.1%	↘	14.7%
▶ (친구나 지인들에게)"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권유하겠다"	54.2%	↗	60.3%

■ (향후 10년 후 거주지)	<그렇다>	vs	<그렇지 않다>
▶ 향후 10년 후 계속 거주 의사	68.7%		8.5%
▶ 거주지 이전 희망지역(※ 향후 이주희망자 응답)	<1위> 수도권	<2위> 그 외 타시도	<3위> 대구

■ (주된 교통수단)	<1위> 승용승합차	<2위> 시내버스	<3위> 택시
▶ 주된 교통수단 이용률	28.1%	25.2%	8.0%
▶ 시군별 평균 통근시간(도 평균 18.0분)	경산 (25.3분)	구미 (24.0분)	포항 (23.6분)
▶ 시군별 평균 통학시간(도 평균 29.5분)	청도 (50.3분)	고령 (40.8분)	성주 (39.9분)
▶ 시군별 자전거 이용률	상주 (12.3%)	성주 (7.5%)	영덕 (6.4%)

■ (지역교통여건 만족도)	<2013년>	vs	<2015년>
▶ 대중교통	28.8%	↘	24.7%
▶ 도로 및 교통시설	29.0%	↘	26.2%
● '만족한다' 상위 시군	김천	문경	고령
● '만족하지 않는다' 상위 시군	성주	영양	봉화

V. 사회 통합 부문

	<1위> 본인(배우자)	<2위> 정부	<3위> 자녀(친척)
■ (노년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 「본인(배우자) 생활비 부담」시 생활비 원천	근로사업소득	연금, 퇴직금	재산소득
■ (노년인구의 현재자녀와 동거여부)	<동거> 15.2%	vs	<비동거> 84.8%
▶ 동거 및 비동거 사유			
● 동거	<1위> 독립생활 불가능	<2위> 같이 살고 싶어서	<3위> 자녀독립생활 불가능
● 비동거	독립생활 가능	자녀(직장, 학업)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 (자원봉사, 후원기부 활동 참여)	<2013년>	vs	<2015년>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2.2%	↘	10.6%
▶ 후원기부활동 참여율	12.2%	↘	11.3%
■ (주관적 귀속계층)	<2013년>	vs	<2015년>
▶ 상위 계층	2.4%	↘	1.7%
▶ 중위 계층	55.1%	↘	52.4%
▶ 하위 계층	42.6%	↗	45.9%
■ (사회적 관계) ※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	<2013년>	vs	<2015년>
▶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 시	75.9%	↘	71.9%
▶ 갑자기 많은 돈 빌릴 일이 생겼을 때	46.4%	↘	44.7%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76.2%	↘	73.5%
■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한다>	vs	<신뢰못함>
▶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32.7%		8.5%
■ (긍정적, 부정적 경험지수) ※ 어제 하루동안 경험한 경험들을 점수화	<2013년>	vs	<2015년>
▶ 긍정적 경험지수	63.0	↘	58.4
▶ 부정적 경험지수	20.5	↗	20.9
■ (삶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수화(0~10)	5.7	↗	5.8

* oecd 평균 6.5, 한국 5.8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2013년>	vs	<2015년>
▶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76.9%	↗	78.4%
▶ 가난은 개인보다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47.9%	↘	47.6%
▶ 노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 있다	47.2%	↘	44.6%
▶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70.1%	↘	68.5%
▶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49.3%	↘	48.5%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소속감 있다>	vs	<소속감 없다>
▶ 동네	69.8%	>	30.3%
▶ 시군	64.8%	>	35.2%
▶ 경북도	55.4%	>	44.5%
■ (지역민 정체성)	<자랑스럽다>	vs	<자랑스럽지 않다>
▶ 경북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7.9%	>	32.1%

VI. 노동 부문

■ (직업안정)	<2014년>	vs	<2015년>
▶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다	92.1%	↘	85.5%
▶ 5년 이상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70.2%	↘	59.0%
■ (직업 만족도)	<2014>	vs	<2015>
▶ 하는 일	47.4%	≡	47.4%
▶ 임금	34.5%	↘	32.0%
▶ 장래성	37.0%	↘	34.2%
▶ 근로환경	35.8%	↗	37.9%
▶ 근로시간	35.8%	↗	39.3%

2015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I 가구 관련

1. 비문해 가구원

□ 도내 「비문해 인구」*는 106천명, 비문해자 비율은 4.5%(올진4.3%)를 차지함

* 비문해 인구 :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

○ '14년에 비해 비문해자 수는 2천명

(2.0%) 감소함

○ 비문해자 비율 상/하위 시·군

- 상위 : 영덕 7.3%, 봉화 6.7%, 고령 6.1%

- 하위 : 구미 1.5%, 울릉 1.9%, 경산 2.0%

전체 비문해자 비율



2. 배우자의 경제활동

□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56.2%(올진42.4%), 두 가구 중 한가구는 맞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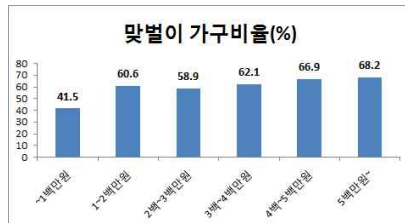
○ 남성 가구주(55.8%) 보다 여성가구주(62.0%)의 맞벌이 비율이 높음

○ 결혼 육아가 시작되는 30대 맞벌이 비율 44.7% → 자녀 취학과 결혼 개시되는 40대와 50대(59.9%, 64.7%↗) → 자녀가 독립하는 60대 다시 하락(52.9%↘)

○ (월평균 가구소득별 맞벌이 비율) 1백만원미만 41.5% vs. 5백만원이상 68.2%

⇒ 맞벌이와 가구소득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월평균 가구소득	맞벌이 가구비율(%)
1백만원 미만	41.5
1~2백만원 미만	60.6
2~3백만원 미만	58.9
3~4백만원 미만	62.1
4~5백만원 미만	66.9
5백만원 이상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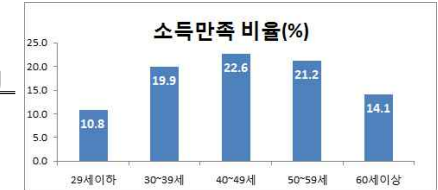
II 소득·소비 부문

3. 소득 만족도

□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 16.9%(올진16.3%) VS. 「만족하지 못한다」 22.7%(올진22.4%)

○ 2년전 대비 「만족한다」 1.0%p 증가↑, 「만족하지 못한다」 5.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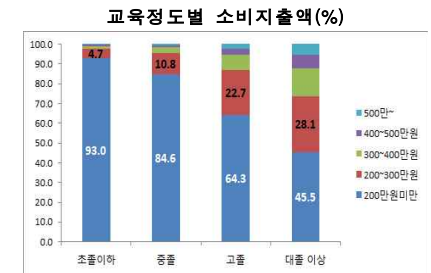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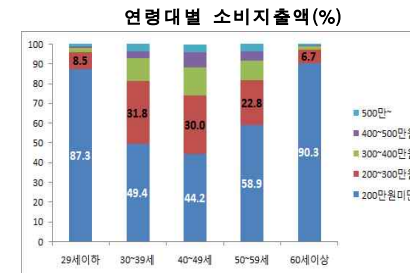
○ 연령대별 만족 비율



4. 소비지출액, 소비만족도

□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00만원 미만」 75.1%(올진72.5%), 2년전 대비 7.4%p 증가

○ 「200만원 미만」 가구가 많은 연령대 : 60대이상(90.3%), 20대이하(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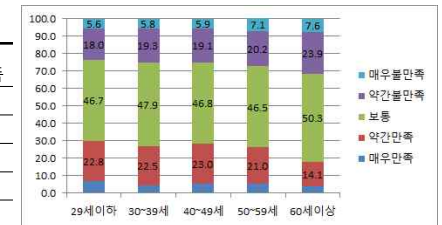
□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23.0%(올진23.1%) vs. 만족하지 못한다 28.4%(올진28.8%)

○ 「20대」에서 「40대」까지 : 만족 > 불만족 vs. 「50대」 이상 : 만족 < 불만족

○ 특히 60세이상 : 만족한다 18.1%인데 비해 만족하지 못한다 31.5%

《연령대별 소비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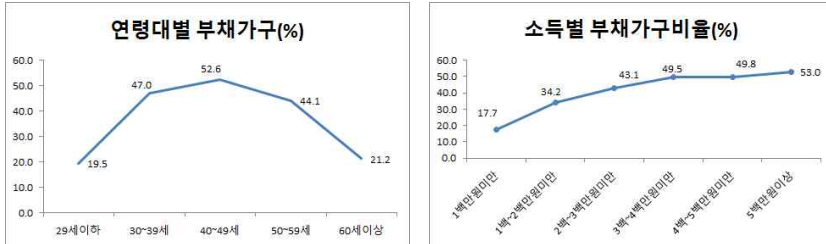
연령대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29세이하	6.9	22.8	46.7	18.0	5.6
30~39세	4.5	22.5	47.9	19.3	5.8
40~49세	5.2	23.0	46.8	19.1	5.9
50~59세	5.3	21.0	46.5	20.2	7.1
60세이상	4.0	14.1	50.3	23.9	7.6



5. 부채가구 비율, 주된 이유,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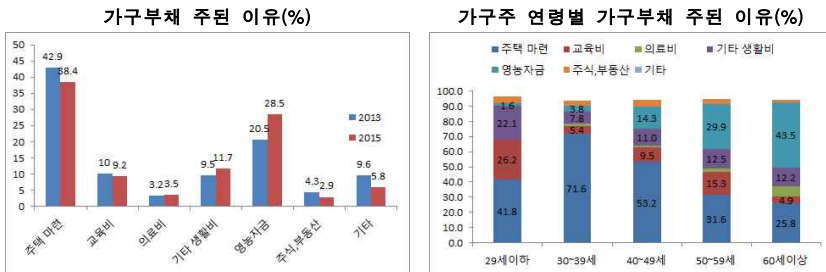
□ 부채가구 비율은 31.6%(올진28.2%), 2년전과 큰 변동이 없음

- 「20대이하」 19.5%→「30대」 47.0%→「40대」 52.6%→「50대」 44.1%→「60대」 21.2%
-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부채가구 비율도 높아짐 : 「백만원미만」 17.7%→「500만원이상」 50.3%



□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 (1순위) '주택임차구입' 38.4%, (2순위) '영농자금' 28.5%, (3순위) '기타생활비' 11.7%
- (2년전 비교) '주택임차구입' 4.5%p 감소(↘) vs. '영농자금' 8.0%p 증가(↗)
- (연령대별)
 - 20대 : 주택 마련(41.8%) >> 교육비(26.2%) >> 기타생활비(22.1%)
 - 30대 : 주택 마련(71.6%)
 - 40대 : 주택 마련(53.2%)
 - 50대 : 주택 마련(31.6%) >> 영농자금(29.9%)
 - 60대 : 영농자금(43.5%) >> 주택마련(25.8%)



□ 부채에 대한 부담 : 부담스럽다 86.6%(올진88.5%) vs. 부담스럽지 않다 13.4%(올진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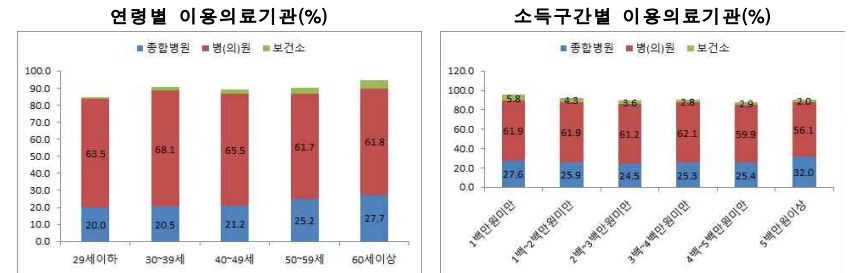
-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86.6%로 2년전 대비 1.3%p 증가함

III 보건 부문

6. 의료서비스 이용기관, 서비스만족도

□ 「도내 의료기관」 이용 74.0% vs. 「도의 의료기관」 이용 6.7%

- (2년전 대비) 「도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2%p 감소, 「도의 의료기관」 이용비율 1.1%p 증가
- 도내 의료기관 이용 : 병(의)원 66.0% >> 종합병원 25.3% >> 보건소 4.1%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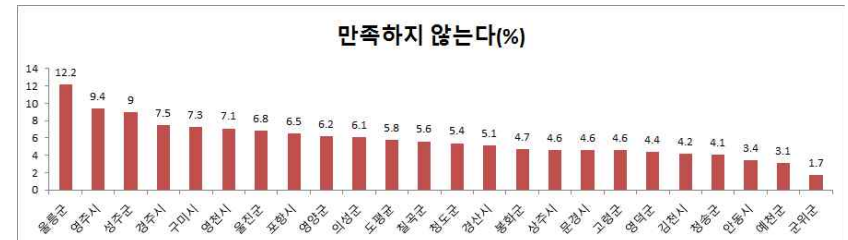


- 「도의 의료기관」 이용 상위시군 : 고령 29.0% >> 울진 14.0% >> 경산 10.7%



□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 「만족한다」 60.9%(올진57%) vs. 「만족하지 못한다」 5.8%(올진6.8%)

- 2년전 대비 「만족한다」 2.9%p 증가, 「만족하지 않는다」 0.7%p 증가
- 「만족하지 않는다」 상위 시군 : 울릉 12.2%, 영주 9.4%, 성주 9.0%
- 「만족하지 않는다」 하위 시군 : 군위 1.7%, 예천 3.1%, 안동 3.4%



IV 주거와 교통 부문

7. 주택만족도

□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한다」 48.4%(올진44.4%), 「만족하지 못한다」 11.1%(올진15%)

- (2년전 대비) 「만족한다」 4.5%p 감소 vs. 「만족하지 못한다」 0.3%p 증가
- (주택유형별 만족 비율) 단독주택(51.7%) > 아파트(45.8%)
- (주택유형별 불만족 비율) 연립·다세대주택(13.0%) > 단독주택(10.3%) > 아파트(9.7%)

《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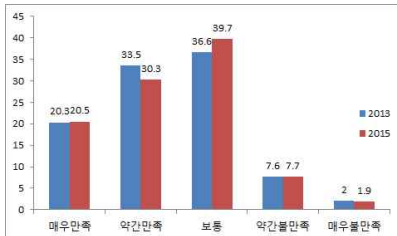
구분	(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2013	52.9	19.6	33.3	36.3	10.8	8.9	1.9
2015	48.4	16.3	32.1	40.5	11.1	8.9	2.2
단독주택	51.7	19.2	32.5	38.0	10.3	8.2	2.1
아파트	45.8	13.0	32.8	44.5	9.7	7.8	1.9
연립·다세대	40.0	11.3	28.7	47.0	13.0	10.8	2.2
기타	34.4	12.2	22.2	47.4	18.1	13.8	4.3

8. 거주지 만족도

□ 거주지(동네)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한다」 50.8%(올진54.3%) vs. 「불만족한다」 9.6%(올진8.7%)

- (2년전 대비) 「만족한다」 3.0%p 증가 vs. 「불만족한다」 변동없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지 만족도가 증가함
 - 60세이상 : 「만족한다」 59.9%, 「불만족한다」 6.0%
 - 29세이하 : 「만족한다」 31.5%, 「불만족한다」 18.0%

2년전 대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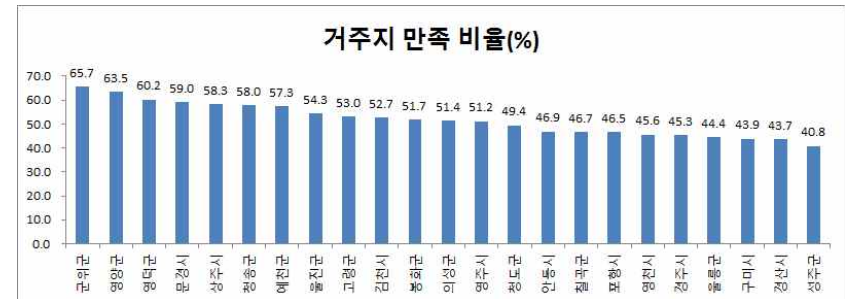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 거주 만족도(%)



□ 시·군별 거주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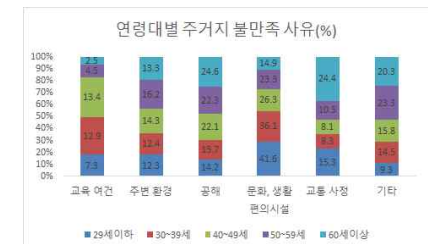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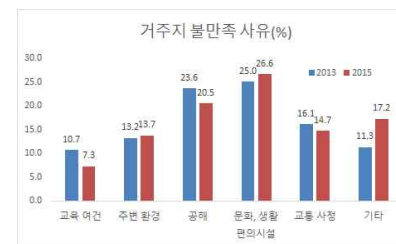
- (만족한다 상위 시·군) 군위 65.7%, 영양 63.5%, 영덕 60.2% (올진 54.3%)
- (만족한다 하위 시·군) 성주 40.8%, 경산 43.7%, 구미 43.9%



9. 거주지 불만족 사유, 이주 권유

□ 거주지 불만족사유 : 「문화·생활편의시설이 떨어져서」 26.6%(올진38.1%)

- 이어 「소음, 매연, 악취 등 공해」 20.5%,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서」 14.7%의 순
- (2년전 대비 감소) 「교육여건」 (-3.4%p), 「공해」 (-3.1%p), 「교통사정」 (-1.4%p)
- (2년전 대비 증가) 「문화·생활편의시설 부족」 1.6%p
- 「29세이하」와 「30~39세이하」는 「문화·생활편의시설이 떨어져서」, 「60세이상」은 「공해」, 「교통사정」의 비율이 높음



□ 친구나 지인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권유하겠다” 60.3%(올진54.1%),

2년전에 비해 6.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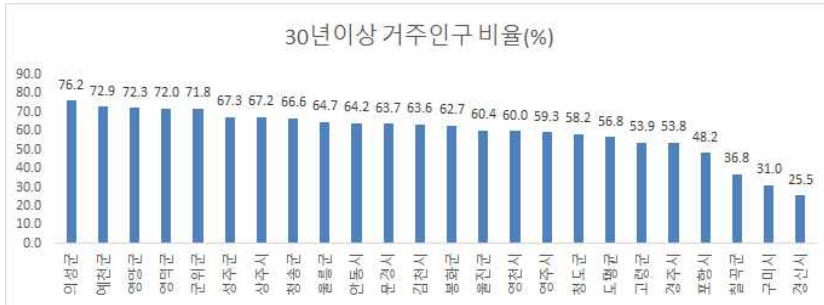
- (연령별 비교) 29세이하 「아니오」 52.3% vs. 60세이상 「예」 62.9%

10. 거주기간, 향후 10년 이후 거주 의사, 거주 희망 지역

□ 현 거주지에서 거주기간은 「30년이상」이 56.8%(올진60.4%)

- 이어 「11~20년」 15.2%, 「21~30년」 13.2%, 「5년이하」 7.1%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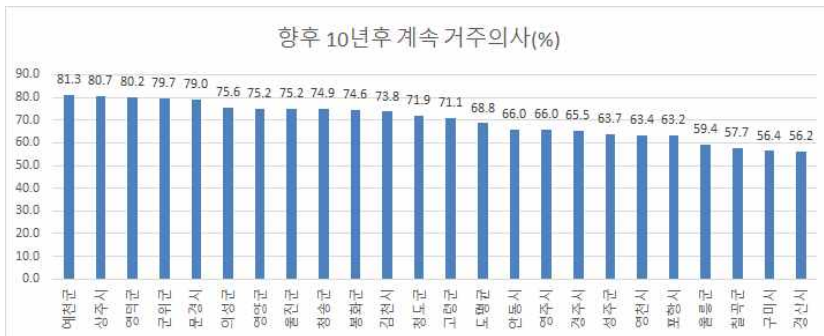
○ 「30년이상」이 높은 시·군 : 의성(76.2%), 예천(72.9%), 영양(72.3%)



○ 「5년이하」비율이 높은 시·군 : 경산(20.5%), 칠곡(11.2%), 울릉(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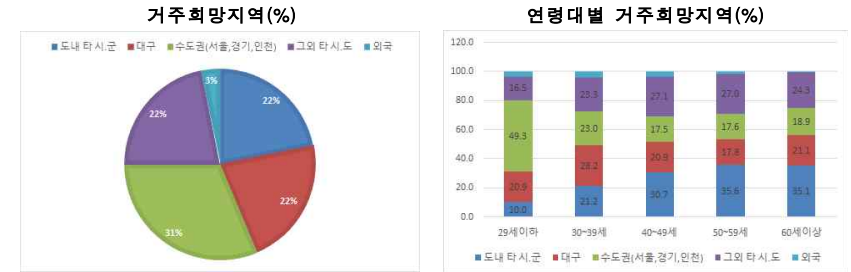


□ 향후 10년후 계속 거주 의사 : 「그렇다」 68.7%(올진75.2%) vs. 「그렇지 않다」 8.5%(올진8.7%)



□ “향후 10년 이후 거주지 사군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거주 희망 지역

○ 「수도권」 31.3%, 「그외 타시도」 21.9%, 「도내 타시군」, 「대구」 21.8%의 순



□ 북부지역은 수도권, 대구인근지역은 대구, 경주는 울산이 거주 희망 지역

○ 「수도권」은 북부지역 시·군에서 비율이 높음 : 문경(55.6%), 영주(55.2%), 안동(49.4%) (올진47.5%)

○ 「대구」는 인근 사군에서 비율이 높음 : 성주(68.7%), 고령(54.8%), 경산(49.4%) (올진5.1%)

○ 「도내 타시군」은 안동 인근 사군과 울릉에서 높음 : 군위(45.8%), 봉화(40.5%), 울릉(39.5%) (올진22%)

○ 「그외 타시도」는 울산을 인접하고 있는 경주(37.0%)가 비율이 높음 (올진24.6%)

11. 주된 교통수단, 통근·통학 시간

□ 주된 교통수단 : 「승용/승합차」 28.1%(올진31%), 「사내버스」 25.2%(올진28.3%), 「택시」 8.0%(올진12%)의 순

《주요 교통수단별 상위 시·군》

○ 「승용/승합차」: 칠곡 32.4%, 구미 32.0%, 성주 31.6%

○ 「사내버스」: 경산 37.0%, 울릉 29.5%, 포항 29.3%

○ 「자전거」: 상주 12.3%, 성주 7.5%, 영덕 6.4% (올진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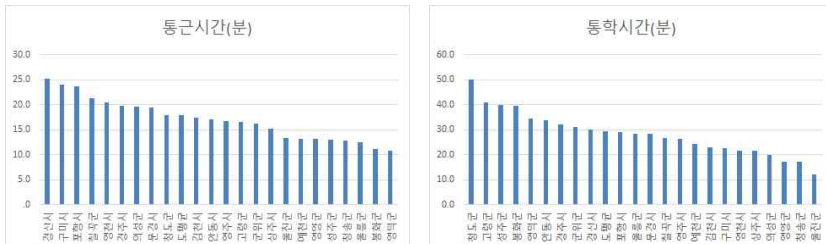


12. 통근/통학 시간

□ 출근/등교에 소요되는 시간 : 「통근」 18.0분(올진18.4%), 「통학」 29.5분(올진12.9%)

《통근/통학시간이 긴 시·군》

- 「통근」 : 경산 25.3분, 구미 24.0분, 포항 23.6분
- 「통학」 : 청도 50.3분, 고령 40.8분, 성주 39.9분



13. 지역교통여건 만족도

□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한다」 24.7%(올진15.8%) vs. 「만족하지 않는다」 23.1%(올진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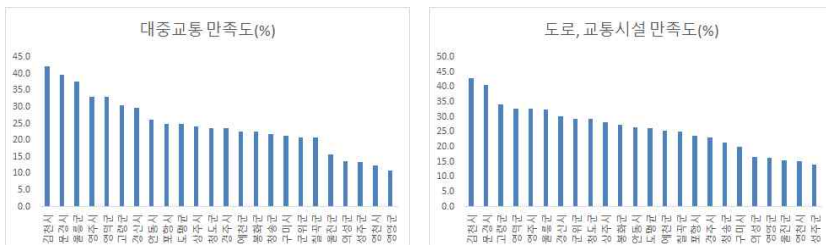
《대중교통 만족·불만족 상위 시·군》

- 「만족한다」 : 김천 42.3%, 문경 39.6%, 울릉 37.5%
- 「만족하지 않는다」 : 영양 37.9%, 칠곡 33.0%, 성주 32.2%

□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만족한다」 26.2%(올진15.5%) vs. 「만족하지 않는다」 16.9%(올진21.5%)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불만족 상위 시·군》

- 「만족한다」 : 김천 43.0%, 문경 40.7%, 고령 34.2%
- 「만족하지 않는다」 : 성주 28.1%, 영양 26.6%, 봉화 22.5%



V 사회 통합 부문

14.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보육시설 만족도

- 미취학자녀의 보육방법 : 「어린이집」 (46.3%)(올진52.8%), 「유치원」 (28.3%)(올진7.5%), 「본인,배우자」 (21.4%)(올진31.7%)의 순
- (2년전 대비) 「어린이집」 2.3%p, 유치원 3.7%p 증가 vs. 「본인,배우자」 4.7%p 감소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함

《미취학아동 보육방법》

단위 : %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 친인척	친인척 아닌 개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기타
2013	26.1	3.8	0.7	44.0	24.6	0.3	0.4
2015	21.4	2.4	0.4	46.3	28.3	0.8	0.5
동	23.2	2.3	0.3	41.6	31.1	0.9	0.6
읍면	19.1	2.4	0.5	52.1	24.8	0.6	0.5

□ 미취학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대해 ‘만족한다’ 는 비율은 67.9%(올진72%), 2년전 대비 14.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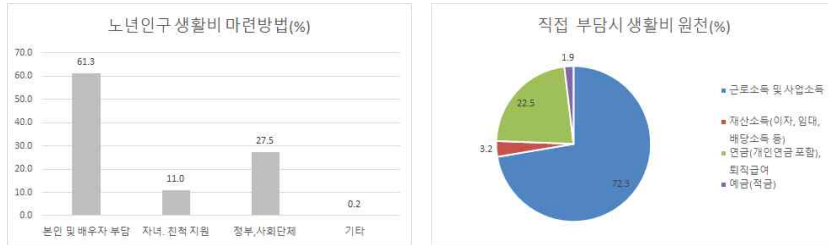
《미취학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2013	20.3	33.5	36.6	7.6	2.0
2015	29.4	38.5	27.4	4.2	0.5

15. 노년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 만60세이상 노년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61.3%(올진41.3%), 「정부 및 사회단체」 27.5%(올진52.7%), 「자녀 또는 친척지원」 11.0%(올진5.4%)의 순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 시 생활비 원천 : 근로·사업소득 72.3%, 연금, 퇴직급여 22.5%, 재산소득 3.2%의 순
- 월평균 소득이 2백만원 이상인 노인가구는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 부담’ 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생활비 원천이 「정부 및 사회단체」 인 비율이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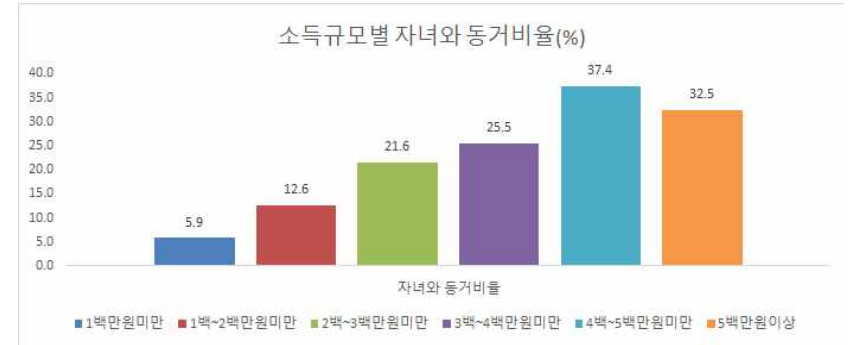
《월 평균 가구소득별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재산 소득	연금 소득	예금(적금)		같이 살고 있음	같이 살고 있지 않음			
1백만원미만	45.2	62.9	3.4	31.0	2.7	11.1	5.9	94.1	43.4	0.3
1백~2백만원미만	81.7	79.2	3.4	16.0	1.4	6.1	12.6	87.4	12.1	0.1
2백~3백만원미만	93.4	78.4	3.0	17.5	1.1	3.5	21.6	78.4	3.0	0.1
3백~4백만원미만	93.9	79.3	3.1	17.5	0.0	2.9	25.5	74.5	3.1	0.0
4백~5백만원미만	93.2	81.0	2.2	16.8	0.0	2.7	37.4	62.6	4.1	0.0
5백만원이상	92.2	84.3	5.2	9.8	0.7	6.0	32.5	67.5	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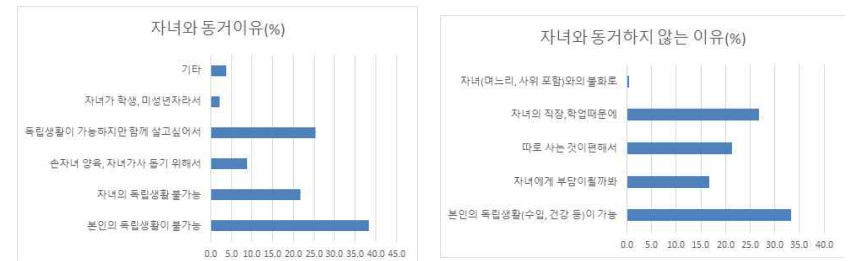
16. 노년인구의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사정

- 60세 이상 노년인구 중 자녀와 현재 「같이 살고 있다」 는 비율은 15.2%(올진12.7%)
- 가구소득별 동거비율 : 「1백만원 미만」 5.9% vs. 「4백~5백만원미만」 37.4%



-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주된 이유로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38.2%(올진34.5%),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25.3%,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므로」 21.8%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서」 33.3%(올진41.7%) 이어 「자녀의 직장·학업 때문에」 26.7%,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21.3%의 순으로 나타남



17. 자원봉사 활동참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0.6%(올진15.6%), 2년전 대비 1.6%p 감소

- 주된 활동분야는「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42.1%, 「국가, 지역행사」 23.7%, 등의 순
- 1회 평균 활동시간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4.1시간, 「환경보전, 범죄예방」 4.0시간, 「재해지역 주민돕기」 3.9시간 등의 순

단위 : %, 시간

구분	참여율 (%)	활동분야											
		아동·청소년 등		환경보전·범죄 예방		자녀교육		국가, 지역행사		재해지역주민돕기		기타	
		(%)	1회활동 시간	(%)	1회활동 시간	(%)	1회활동 시간	(%)	1회활동 시간	(%)	1회활동 시간	(%)	1회활동 시간
2013	12.2	44.1	-	13.8	-	8.4	-	20.4	-	10.9	-	28.0	-
2015	10.6	42.1	4.1	13.2	4.0	6.3	3.2	23.7	3.8	10.0	3.9	25.4	3.7

18. 후원기부 활동참여

□ 후원기부 활동참여율은 11.3%(올진14%), 2년전 대비 0.9%p 감소함

- 주된 후원경로는 「모금단체」 38.3%, 「종교단체」 32.9%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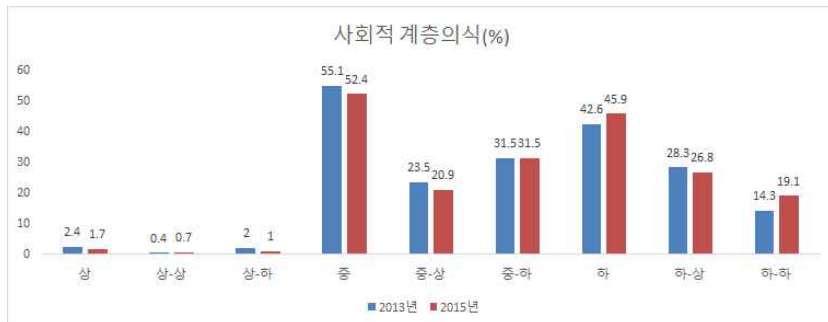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참여율	후원 경로					
		직접 후원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	기타
2013	12.2	13.8	11.2	34.2	31.8	17.9	9.3
2015	11.3	14.2	7.6	38.3	32.9	13.6	9.7

19. 주관적 귀속계층

□ 주관적 귀속 계층 : 상위 1.7%(올진1.6%), 중위 52.4%(올진49.6%), 하위 45.9%(올진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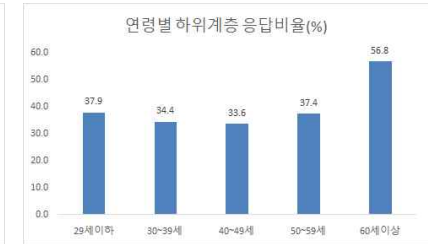
- 2년전 대비 상위 0.7%p 감소, 중위 2.7%p 감소, 하위 3.3%p 증가



- 연령별로 29세이하 : 중위계층 60.8% vs. 하위계층 37.9%

60세이상 : 중위계층 41.7% vs. 하위계층 56.8%

⇒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20. 사회적 관계별 소통정도

□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1.9%(올진60.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2명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4.0%p 감소, 평균 인원수 0.4명 감소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4.7%(올진38.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2.0명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1.7%p 감소, 평균 인원수 1.1명 증가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3.5%(올진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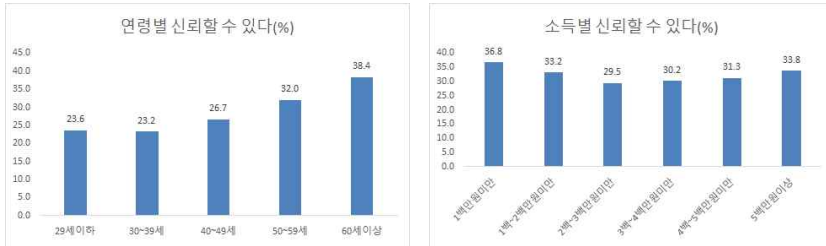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2.5명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2.7%p 감소, 평균 인원수는 0.4명 증가함



21.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르다」 50.5%(올진47.4%), 「신뢰할 수 있다」 32.7%(올진38.5%), 「신뢰할 수 없다」 8.5%(올진5.4%)의 순으로 나타남
- 「20세이하」는 ‘신뢰할 수 있다’ 23.6%인데 비해 「60세이상」은 38.4%로 나타남
- ⇒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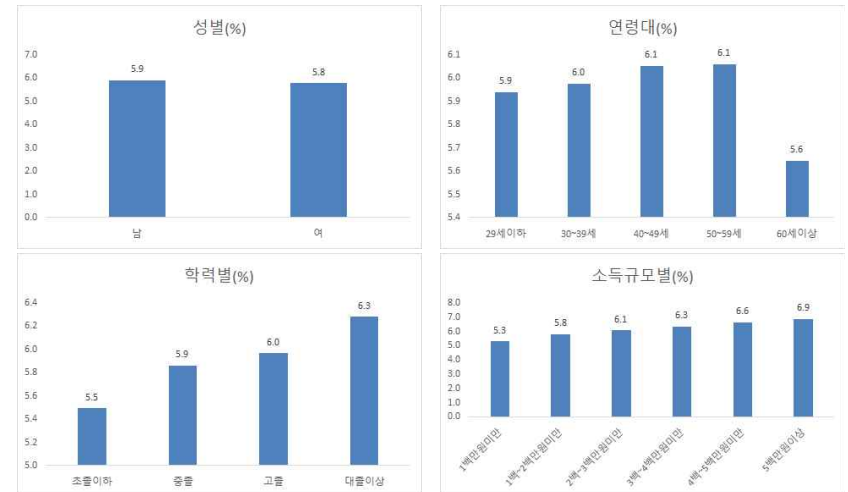
22. 긍정적·부정적 경험지수

- 긍정적 경험지수* : 2013년 63.0 → 2015년 58.4(올진58.3%) (4.6%p↘)
- ※ 긍정적 경험지수 : 어제 하루동안 경험한 긍정적 경험들을 점수화
- 29세이하 69.8, 60세이상 5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경험지수는 감소
- 부정적 경험지수* : 2013년 20.5 → 2015년 20.9(올진21.6%) (0.4%p↗)
- ※ 부정적 경험지수 : 어제 하루동안 경험한 부정적 경험들을 점수화
- 29세이하 16.6, 60세이상 23.3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경험지수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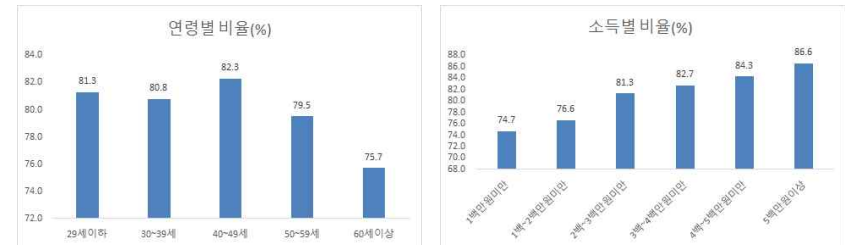
23.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5.8(올진5.7%),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음
- * 삶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응답자가 0~10점까지 점수화
- ※ 대한민국 5.8, OECD 평균 6.5, 최고 노르웨이 10.0, 스페인 5.5
- 성별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음 : 남자 5.9 여자 5.7
- 50대가 가장 높고 60대이상은 가장 낮음 : 29세이하 5.9, 50~59세 6.1, 60세이상 5.6
-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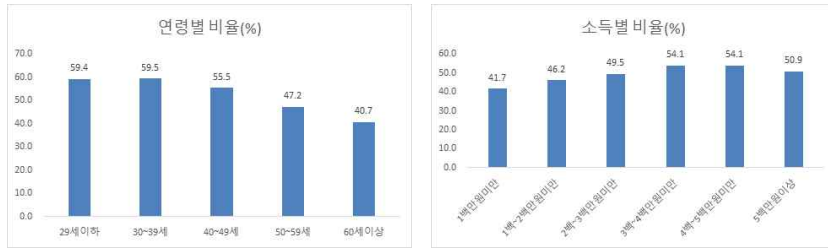
2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내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78.4%(올진83.4%),
- 전년 대비 1.5%p 증가, 매년 비율이 증가 ※ 76.9%(12)→76.9%(13)→78.4%(15) -
- 연령대별로 40~49세가 가장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 가난이 개인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47.6%(올진52.8%)

-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가난이 사회제도에 책임있는 것으로 응답



□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44.6%(올진49%)가 ‘그렇다’ 고 응답, 2년전 보다 2.6%p 감소

-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짐 : 「29세이하」 51.9% vs. 「60세이상」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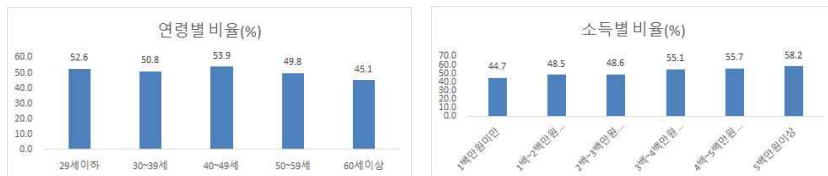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68.5%(올진71%). 남자는 66.8% 여자는 69.8%



□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을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에 대해

「그렇다」 48.5%(올진58.2%)로 소득이 많을 수록 비율이 높아짐



25. 지역에 대한 소속감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소속감 있다」 69.8%(올진69.9%) vs. 「소속감 없다」 30.3%(올진30%)

《동네에 대한 소속감 상·하위 시·군》

- 상위 시군 : 군위 86.9%, 청송 84.2%, 예천 83.6%
- 하위 시군 : 경산 52.1%, 울릉 60.0%, 포항 62.0%



□ “현재 살고 있는” 사군에 대해 「소속감이 있다」 64.8%(올진62.2%) vs. 「소속감 없다」 35.2%(올진37.8%)

《시·군에 대한 소속감 상·하위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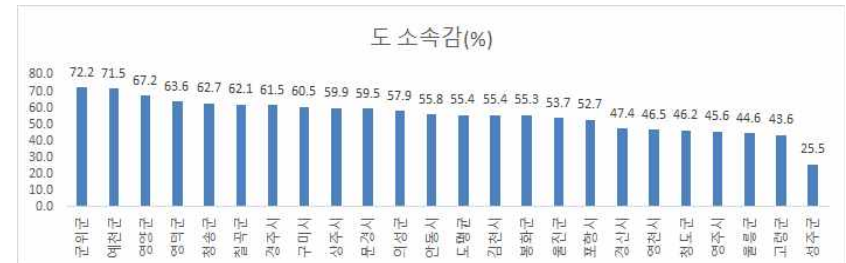
- 상위 시군 : 군위 81.4%, 예천 79.6%, 영양 78.9%
- 하위 시군 : 성주 50.7%, 경산 51.7%, 울릉 54.3%



□ 경상북도에 대해 「소속감이 있다」 55.4%(올진53.7%) vs. 「소속감 없다」 44.5%(올진46.4%)

《도에 대한 소속감 상·하위 시·군》

- 상위 시군 : 군위 72.2%, 예천 71.5%, 영양 67.2%
- 하위 시군 : 성주 25.5%, 고령 43.6%, 울릉 44.6%



26. 경북도민으로서 자랑스러움

□ “경북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7.9%(올진68.4%)

《상·하위 시·군》

- 상위 시군 : 군위 72.2%, 예천 71.5%, 영양 67.2%
- 하위 시군 : 성주 25.5%, 고령 43.6%, 울릉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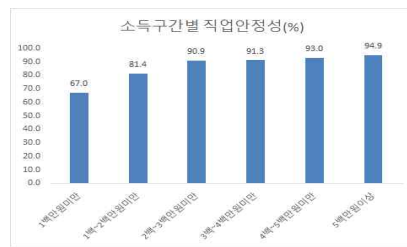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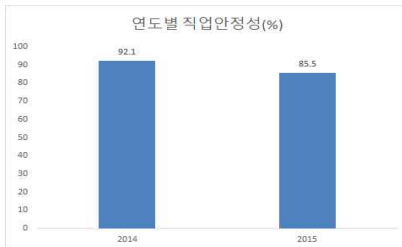


VI 노동 부문

27.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

□ ‘직장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다’ 85.5%(올진91.1%, 14년대비 6.6%p 감소)

- 남성근로자 87.2%, 여성근로자 83.1%로 남성의 직업안정성이 높음
 - 가구소득이 「5백만원이상」 근로자 가구 94.9% vs. 「1백만원미만」 67.0%
- ⇒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대하는 직장 종사기간’ 이 5년이상인 근로자 비율은 59.0%(올진69.4%)

- 남성근로자는 66.1%. 여성근로자는 49.5%로 나타남
- 「1백만원미만」 29.2% vs. 「4백~5백만원미만」 77.9%

28. 직업만족도

□ ‘하는 일’ : 만족한다 37.4%(올진50.1%) vs. 만족하지 않는다 11.4%(올진11.4%)

- (전년 대비) 만족한다 10.0%p 증가, 만족하지 않는다 1.0%p 증가

□ ‘임 금’ : 만족한다 32.0%(올진38%) vs. 만족하지 않는다 24.1%(올진22.8%)

- (전년 대비) 만족한다 2.5%p 감소, 만족하지 않는다 2.8%p 증가

□ ‘장래성’ : 만족한다 34.2%(올진40.9%) vs. 만족하지 않는다 25.1%(올진17.9%)

- (전년 대비) 만족한다 2.8%p 감소, 만족하지 않는다 7.3%p 증가

□ ‘근로환경’ : 만족한다 37.9%(올진44.4%) vs. 만족하지 않는다 21.5%(올진16%)

- (전년 대비) 만족한다 2.1%p 증가, 만족하지 않는다 3.5%p 증가

□ ‘근로시간’ : 만족한다 39.3%(올진45.2%) vs. 만족하지 않는다 20.0%(올진14.9%)

- (전년 대비) 만족한다 3.5%p 증가, 만족하지 않는다 2.0%p 증가



VII 울진군 특성문항

29.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울진군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높은 편’

- ☐ 울진군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보통 46.3%, 높다 30.0%, 매우높다 8.4% 응답하였음.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2015	8.4	30.0	46.3	11.9	3.4
남	7.6	26.6	50.3	11.7	3.7
여	9.1	32.8	42.9	12.0	3.1
29세이하	1.4	13.9	51.4	23.6	9.7
30~39세	7.0	27.2	44.7	14.9	6.1
40~49세	9.1	31.4	44.5	11.8	3.2
50~59세	9.6	26.7	47.0	13.5	3.2
60세이상	8.8	33.1	46.4	9.3	2.4

30. 복지서비스 분야

생계곤란,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 ‘현금지원’

- ☐ 생계곤란,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57.9%로 독보적으로 높았고 이어 사회복지서비스, 직업상담과 같은 서비스지원이 15.0%로 나타남.

구분	직접적인 현금지원	간접적인 현금지원 (각종 용자 등)	현물지원 (쌀, 기름, 쌀채어 등)	서비스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직업상담 등)	보호시설 확충 (요양원, 보육시설 등)	영구임대주택	기타
2015	57.9	4.8	7.6	15.0	7.1	6.0	1.6
남	51.1	5.5	8.4	16.2	8.7	7.9	2.1
여	63.7	4.1	6.9	14.0	5.8	4.4	1.1
1백만원미만	70.8	1.3	10.3	8.5	4.1	2.6	2.3
1백~2백만원미만	59.8	4.7	7.9	13.4	7.1	4.7	2.4
2백~3백만원미만	44.2	10.5	11.6	9.3	7.0	15.1	2.3
3백~4백만원미만	42.1	10.5	5.3	19.7	7.9	14.5	0.0
4백~5백만원미만	30.2	7.0	2.3	34.9	14.0	11.6	0.0
5백만원이상	25.3	5.3	6.7	21.3	21.3	16.0	4.0

31. 관광명소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 - 온천, 금강소나무숲길

응답 연령대가 낮을수록 ‘금강송숲길’ 을, 응답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천’ 이라 응답

- ☐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로 37.6%가 온천, 27.9%가 금강소나무숲길, 16%가 불영계곡이라고 응답함.

- 연령이 낮을수록 금강소나무숲길을, 연령이 높을수록 온천을 선호함.

구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불영계곡	성류굴	온천(덕구, 백암)	자연휴양림 (통고산, 구수곡)	기타
2015	27.9	16.0	12.3	37.6	3.9	2.3
남	31.5	17.9	10.3	32.5	5.2	2.6
여	24.8	14.4	14.0	42.0	2.9	2.1
29세이하	30.7	18.7	6.7	29.3	13.3	1.3
30~39세	45.0	17.5	5.0	25.8	5.0	1.7
40~49세	37.1	21.1	9.9	23.3	3.9	4.7
50~59세	35.8	15.1	14.0	29.8	4.2	1.1
60세이상	17.9	14.0	14.4	48.9	2.6	2.1

32. 시장이용도

시장을 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전통시장’ 인근중형마트 > 동네슈퍼’ 순

- ☐ 쇼핑 또는 시장을 보기 위해 울진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전통시장이 58.6%로 가장 높았고, 이를 이어 인근 중형슈퍼 16.8%, 동네슈퍼 12.1%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통시장	동네슈퍼(소규모)	인근 중형슈퍼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기타
2015	58.6	12.1	16.8	7.7	0.4	3.9	0.6
남	50.5	17.0	17.6	9.7	0.5	4.0	0.6
여	65.5	8.0	16.1	5.9	0.3	3.7	0.5
29세이하	9.3	22.7	30.7	8.0	1.3	28.0	0.0
30~39세	29.2	21.7	18.3	18.3	0.8	10.8	0.8
40~49세	32.9	19.0	23.4	18.2	0.4	5.6	0.4
50~59세	55.8	13.2	18.9	9.4	0.8	1.5	0.4
60세이상	79.8	6.3	11.8	1.2	0.0	0.2	0.8

33. 전통시장 개선점

전통시장의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 올진군민이 시장을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30.4%가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29.6%가 주변환경개선을 꼽음.

구분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주변환경개선	가격 정찰제 실시	신용카드사용 등 거래형태 개선	불거리 행사 및 실터확충	기타
2015	30.4	29.6	9.0	10.7	14.6	5.7
남	34.4	27.6	8.9	11.0	13.1	5.0
여	26.9	31.3	9.2	10.4	15.9	6.3
29세이하	25.3	26.7	5.3	17.3	20.0	5.3
30~39세	35.0	25.0	11.7	17.5	6.7	4.2
40~49세	34.1	24.6	8.2	14.7	15.1	3.4
50~59세	29.2	26.1	7.6	19.3	11.7	6.1
60세이상	29.3	34.0	9.9	3.8	16.4	6.7